

# 공공도서관, 지역 문화공간으로 바뀐다

## 다양한 문화행사로 주민에게 다가가... 지역특성 살린 프로그램 마련해야

공공도서관이 변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절반 가량이 재수생,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 역시 자료열람실보다는 자유열람실로 조사돼 도서관이 공부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은 서울 시내 21개 공공도서관이 모두 공통. 그러나 최근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러 가는 곳, 공부하는 곳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가꾸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 시설과 행사로 주민 참여 유도

변화하는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관심은 지역 주민의 발길을 도서관으로 돌리는 일이다. 매일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이제 공공도서관의 기본사업 중 하나다. 이를 통해 도서관 안팎의 소식을 전하고, 도서관이 주도하는 행사나 문화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한다. 특히 주부교실 등 지역의 고정세인 주부 중심의 여러 사업은 정기적

으로 전시회나 발표회를 열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올 11~12월에만도 강동·강서·고척·도봉·동작·목동·송파·중계도서관에서 주부교실 참가자들의 서예·꽃꽂이 작품을 모아 도서관·구민회관 등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12월 10일부터 5일간은 용산도서관(관장 윤강하·용산구 후암동) 주최로 19개 도서관이 참여하는 제8회 연합서화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대부분 도서관이 일주일이나 한달 단위로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영화나 교육용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정기적으로든 부정기적으로든 독서문화강좌를 연다.

행사 외에 각종 시설로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이끄는 작업도 한창이다. 개관 2년째를 맞고 있는 송파도서관(관장 송기호·송파구 오금동)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어린이 열람실에 꽂혀 있는 학년별 개인 독서기록



송파도서관의 '모자열람실'. 주부들이 아이와 함께 독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장은 송파도서관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 하교시간이 이른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무료로 배포된 자신의 독서기록장에 감상문을 쓰고 가면 담당 사서가 읽고 맞춤법·이해도 등에 조언을 적어 준다.

열람과 문명일 과장(49)은 "자신들이 쓴 글을 관심을 갖고 읽어주니 호응이 대단히 높다"고 말한다. 특히 1층에 어린이 열람실과 나란히 있는 모자열람실은 취학전 아동들과 어머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부에게 아이도 보고, 독서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제공한다.

모자열람실은 목동도서관과 중계도서관에서도 시도한 바 있지만 지역민들의 이용빈도가 적어 문을 닫았고, 현재 송파와 마포도서관에서 운영중이다. 이는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민업무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서울 공공도서관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남산도서관(관장 신민부·용산구 후암동)의 경우, 주택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나 시설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서승 열람과장(36)은 "도서관 소식지와 지역신문, 반사회보 등을 통해 일년에 4~5차례 여는 강연회를 홍보하고,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다. 올해는 탐험가 허영호씨와 콘설턴트 윤은기씨를 초청, 강연회를 열었는데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본적인 도서대여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것도 일반인에게 다가가는 한 방법. 남산도서관은 작년 10월부터 대출가능한 도서의 범위를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모두'로 늘렸다.

도봉도서관(관장 조경자·도봉구 쌍문동)은 매일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구민들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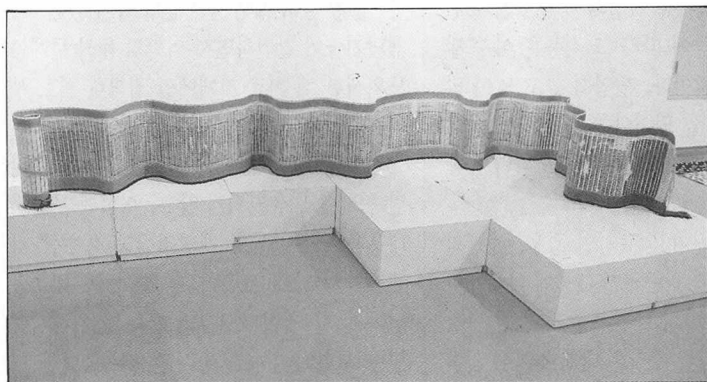
### 표지의 말

## 인류에게 빛을 던진 문자의 세계

### 한글 반포 550돌 기념 <문자의 세계전>

문자에는 인류의 역사와 예술이 집약돼 나타난다. 한글 반포 550돌을 기념, '예술의 전당' 주최로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13일까지 열린 <문자의 세계전>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는 세계문자에 담긴 꿈틀거리는 인간의 숨결과 생활 속의 역사를 더듬게 한다.

국내외 30개 박물관에서 선정한 세계 각국의 문자 500여점은 인류사회 발전의 길을 따라 입체적으로 놓여 있다. 서양의 문자는 독일 24개 박물관에서 엄선한 240여 작품으로 서양 알파벳의 원류인 이집트 신성문자(Hieroglyphy), 메소포타미아의 쉐기문자, 세계 최초의 라틴 명문이 기록된 로물러스



김성래 <문자도>(1996)

비석, 이집트 서기석과 로제타스톤, 그리스 스키톤 묘비석 등 인류에게 문자가 빛을 밝힌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중세의 필사장면과 문자구조, 근대의 타이핑 모습을 복원한 밀랍인형은 문자의 살아 변화하는 역사를 한눈에 펼친다. 또 피테의 원고, 모짜르트, 베토벤의 자필서한 등은 문자에 담긴 유럽 거장의 생생한 숨결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 민족 최대 문화자산인 '한글'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도 흥미롭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 한글 관련 희귀자료 300여 점도 세계문자 속에서 독특한 조형적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특히 김기창·이응로 등 현대작가 25명이 '한글'의 조형미를 신비로운 작품으로 형상화한 회화·조각·설치·서예 작품은 미래 정보사회에서도 돋보이는 한글의 현대적 예술성이 다.

표지 작품은 독일의 카를게오르그 호퍼(Karlgeorg Hoffer)의 <프락투어(Fraktur)> (1990, 오픈바흐).



두산100주년 기념

##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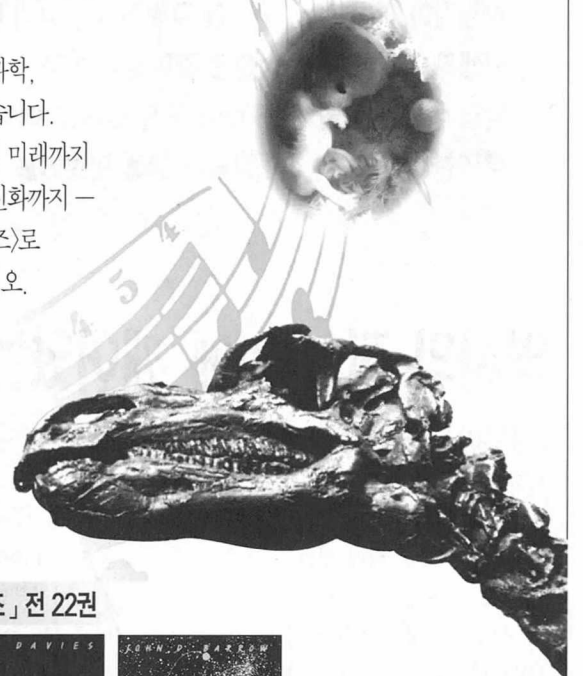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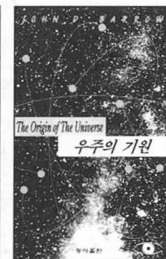
###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본 진화의 매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크비워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평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 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의 산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애킨즈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이름 다른 관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호랑이는 좀누나, 표범은 점박이누나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테워드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 계속 발간 됩니다.



독산동아

영입 (02)861-4818 / (02)853-5608

### 공공도서관이 주민들과 함께

#### 지역문화를 가꾸는

####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 바뀌고 있다.

#### 시낭송회나 주부 서예

#### 작품전, 영화 상영과

#### 저자 강연회 등 다양한

####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에게

#### 다가서고 있다.

루어진 시모임에서 시낭송회를 열어 독서운동의 새 양상을 보여준다. 강남도서관(관장 김오균·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개관한지 오래되어 시설은 갖추지 못했지만, 작년 9월 무역센터를 빌려 가족신문전시회를 치렀다. 열람과 김명숙씨는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기획했다”며 도서관이 주민들의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는데 제몫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꼭 책을 보지 않더라도 도서관이 지역민들 내에 지역문화의 근거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 신생 도서관들 편의시설 갖춰 변화

이같은 변화를 주도한 것은 개관 2년 안팎의 신생 도서관들. 이들 도서관은 종래 도서관에 비해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갖추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아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열린 체계 속에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된다. 개관한지 18개월을 맞고 있는 마포도서관(관장 박종량·마포구 서교동)은 그 가운데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김영업 열람과장(51)은 “본래 도서관은 정보제공 뿐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의 기능이 있다. 도서관의 변신이 좀더 일찍 이루어져야 했다”며 도서관 중심의 문화행사를 강조했다. 실제로 개관한지 2년 안팎인 마포도서관은 송파도서관 등 강연회를 위한 200석 규모의 대강당·문화교실·소강당 등을 갖추었고 지하에 수영장·체력단련

장을 마련해 주민들이 친근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래된 도서관도 강당을 새로 개·보수하는 등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도서관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마포도서관의 김영업 열람과장은 “그간 도서관의 관찰처가 교육부·문화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예산지원이 혼선을 빚고 그때마다 역할의 개념이 달라진 것도 도서관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변화를 도서관 기능의 회복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문화교실이나 유명인의 초청강연 등으로 도서관의 본래 기능인 자료제공 기능이 축소되고, 성과 위주의 ‘시끄러운 학원’이 되어간다는 시선이다. 하지만 “그간 도서관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보일 뿐”이라는 송파도서관의 문명일 과장은 “서구에서는 도서관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지역문화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잡고 있다”며 공공도서관의 미래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그려보인다. 물론 여러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료실 확충이나 장서구입비의 지속적인 증액은 전제돼야 할 사항이다.

“안토니오 꼬레아를 취재하러 간 국내 취재팀에게 이탈리아 소도시 사람들이 모두 그 지역 도서관에 가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도서관의 한 실무자는,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의 산실로 자리잡으려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향토자료실의 마련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정착시켜 더욱 활기찬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현주 기자